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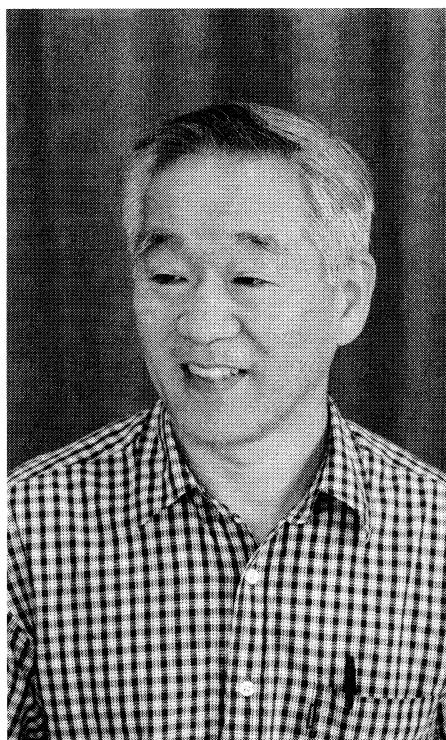
곳에서 자신의 능력껏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고, 또 중요한 것은 선교사님들이 사역할 때 보면 꼭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함께 동역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즉 함께 협력하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선교는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 비전을 나누고 사명을 나누고 준비를 할 때 작은 불이 모여 큰 불을 만들어내듯 시니어 선교의 횃불이 타오를 것으로 기대합니다.

**백학**: 시니어미션이 발족하면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열정과 마음만 있다고 일이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생 후반전을 준비하는 시니어 크리스찬들에게 훈련과 교육을 병행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네트워크를 이루어 나가면 자연스럽게 후반전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다민족 선교 사역에 대한 간단한 선교 오리엔테이션과 다문화 선교에 대한 훈련 등을 거쳐 타민족 선교사역에 동참하면 이보다 더 좋은 사역자들이 없을 것입니다. 시니어 크리스찬들은 인생의 수많은 경험과 사회 전문적인 지식 그리고 신앙의 연륜이 있어 타문화인들에게 따뜻하게 다가가 이들의 필요를 채워주며 전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문화 가정들의 사정과 형편을 이해하고 이들을 감싼다면 이들은 보다 쉽게 우리를 신뢰하게 되어 하나님을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삶의 터전을 옮기는 시니어선교사는 이 장로님이 말씀하



아갑용 장로

시니어미션은 주를 믿고 고백하는 사람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더불어 함께' 하는 것이 시니어미션의 방법입니다. 사람들은 선교나 주의 일에 헌신하는 것은 나와 상관이 없는 특수한 사람들만이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 훈련의 과정을 통하여 좀더 전문화된 준비를 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가지고 선교지로 나갈 수 있습니다.

**이갑용**: 시니어 선교사를 배출하기 위해서는 훈련과 교육이 매우 중요함을 우리 모두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시니어들의 동원일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정기적인 모임과 집회 등을 통해 인적 자원을 넓혀나가며, 그 자원을 바탕으로 훈련과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교육이나 훈련하면 일방적인 것으로 생각되기 쉬운데, 시니어들의 삶을 나누고 또한 본이 될 만한 시니어 선교사들의 경험들을 들으면서 선교의 사명을 고취시키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또 작은 일이나마 실제로 전도와 선교의 일들을 진행해 나가며 훈련의 방편으로 삼는 방법도 고려해 볼 예정입니다.

기본적으로 시니어 선교학교를 기획하고 있는데 한 주에 한 번씩 8주 과정을 기본으로 중간에 1박 2일의 수련회 모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정의 교육을 마치게 되면 실제 선교현장을 돌아보는 선교여행을 통해서 선교지 체험과 영성훈련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니어의 생활 및 건강에 대한 것도 훈련 과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개인의 경험과 특기를 살려 선교지의 필요에 따라 특화된 훈련으로 심화 과정을 운영할 수도 있으며, 선교현장의 필요에 따라 맞는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

## 오상원치과



진료시간 월~금: 오전 8시 30분~오후 7시  
토요일: 오전 8시 30분~오후 3시

☎ 9718 3450, 9718 9309  
1/8 London St., Campsie, NSW, 2194

